

나이지리아의 투자환경위험 평가보고서

(2014. 10)

I. 외국인투자통계 평가

I-1. 우리나라의 대 나이지리아 직접투자 실적

단위: 건, 천 달러

	2011	2012	2013	투자누계
연중 투자건수	2	1	0	32
연중 투자총액	3,460	2,665	2,706	198,269
(전년대비 증감률)	(-45.3%)	(-23.0%)	(1.5%)	

□ 우리나라의 대 나이지리아 직접투자 동향(요약)

- 우리나라의 대 나이지리아 직접투자 실적은 총 투자총액의 97%를 차지하는 광업 부문 투자의 감소로 2011년 45.3%, 2012년 23% 감소하였으며, 2013년에는 전년과 유사한 270만 달러를 기록함.
- 2013년 말 기준 투자누계 실적은 투자건수 32건, 투자누계액 약 1억 9,827만 달러이며, 2006년에 이루어진 1억 1,660만 달러 규모의 원유 및 건설 플랜트 관련 대규모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함.

I-2. 대 나이지리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실적

단위: 억 달러

	2011	2012	2013
연중 유입금액	89	71	56
(전년대비 증감률)	(45.9%)	(-20.2%)	(-21.0%)

□ 대 나이지리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요약)

- 대 나이지리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실적은 2011년 석유와 천연가스 부문을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투자가 확대되어 전년보다 45.9%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는 전년 대비 20.2% 감소한 71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2013년에는 신규세제 도입과 투명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석유산업법 통과 지연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21.0% 감소한 56억 달러를 기록함.
- 대 나이지리아 FDI는 주로 원유·가스 부문을 중심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주요 투자국은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유럽, 중국 등임.

II. 국가위험도 평가

II-1. 나이지리아 국가신용등급

	2012	2013	2014.10
한국수출입은행	C3(Positive)	C3(Stable)	C3(Stable)
OECD	5	5	5
S&P	BB-/Negative	BB-/Stable	BB-/Negative
Moody's	Ba3/Stable	Ba3/Stable	Ba3/Stable
Fitch	BB-/Stable	BB-/Stable	BB-/Stable

□ 대 나이지리아 국가신용등급 변동내역(요약)

- 비교적 낮은 재정적자 부담과 국제수지 균형, 풍부한 원유 및 가스 매장량, 석유 수출 수입, 비석유 분야의 성장 등을 이유로 OECD, S&P, Moody's 및 Fitch 모두 2012년 이후 나이지리아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변동 없이 유지함.
- Moody's는 2012년 최초로 나이지리아에 Ba3의 국가신용등급을 부여하였음.

II-2. 나이지리아 단기유동성위험

	기준	2012	2013
총외채/총수출 (%)	120%	22.5	24.7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 (개월)	3개월	4.6	4.8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 (%)	15%	0.3	0.4
단기외채/외환보유액 (%)	100%	20.1	19.3
ECA 거래실적(OECD) (%)	-	25.2	9.8

주) OECD, IMF 기준.

II-3. 나이지리아 수용·송금위험

	진단점수	
	2014.2	2014.10
수용위험(계약실행 가능성)	2.0	2.0
이윤 송금위험	2.5	2.0
대외지급 연체위험	2.0	2.0

주) PRS, ICRG 기준.

III. 투자여건 평가

III-1. 나이지리아 기업경영여건

		기업경영여건 순위	
		2012	2013
종합순위/평균평점		131/185	147/189
1	사업개시(기업등록절차)	119/185	122/189
2	사업허가(상품보관창고 건축)	88/185	151/189
3	재산등록(재산양도 규제)	182/185	185/189
4	전력수급(신설창고 전력공급 절차)	178/185	185/189
5	신용획득(법적권리·신용정보)	23/185	13/189
6	투자자보호(기업 거버넌스)	70/185	68/189
7	조세납부(조세부과대상·환급)	155/185	170/189
8	대외무역(수출입)	154/185	158/189
9	계약실행(법정 효율성)	98/185	136/189
10	사업폐쇄(파산)	105/185	107/189

주) World Bank(IFC), Doing Business 기준.

III-2. 나이지리아 글로벌경쟁력지수

		글로벌경쟁력지수 순위	
		2013	2014
종합순위/평균평점		3.6(120/148)	3.4(127/144)
1	제도(정책, 시스템)	3.1(129/148)	3.0(129/144)
2	인프라스트럭처	2.3(135/148)	2.1(134/144)
3	거시경제 안정성	5.2(46/148)	4.6(76/144)
4	보건·교육	3.0(146/148)	3.0(143/144)
5	인력관리(연수)	3.0(120/148)	2.9(124/144)
6	상품시장 효율성	4.1(93/148)	4.2(87/144)
7	노동시장 효율성	4.5(52/148)	4.5(40/144)
8	금융시장 발전수준	4.0(66/148)	4.1(67/144)
9	기술수준	3.1(108/148)	3.0(104/144)
10	시장규모	4.7(32/148)	4.7(33/144)
11	기업 발전수준	3.9(75/148)	3.8(87/144)
12	혁신	3.0(100/148)	2.8(114/144)

주) WEF, GCI 기준.

III-3. 나이지리아 시장동향·제도변화

<p>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규제)</p>	<p>□ 세계 20대 경제국 도약 '비전 2020'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지리아 정부는 2009년 10월 '2020년 나이지리아 전략 비전(Nigeria Vision 20:2020)' 발표를 통해 2020년에는 세계 20대 경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 부족, 부정부패 등 경제성장 저해요소 개선, 석유산업·농업에 편중된 경제구조의 다변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인프라 확충을 달성방안으로 제시함. <p>□ 투자정책 개혁 부진 및 법적환경 미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비전2020에 따라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최우선으로 통신, 전력 등 사회 인프라 부문 투자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주요한 구조적 개혁의 지연으로 목표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나이지리아의 법적효율성은 144개국 129위로 계약실행에 있어 평균 447일, 40개의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p>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p>	<p>□ 달러 대비 나이라(Naira)화 환율 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은 적정 외환보유고 유지를 위한 안정적 환율 운용에 주안점을 두고 주기적인 환율조정을 시행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보유고의 급락 방지 및 회복을 위한 수차례의 나이라화 평가절하로 달러화 대비 나이라화 환율은 22012년 157.5, 2013년 157.3으로 좁은 폭의 변동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에 연평균 환율도 157.3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향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나이라화의 가치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p>□ 투자과실 해외송금 전면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의 대외 송금 규제가 철폐되어 외국인의 외환 및 현지화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영업상 과실에 대한 해외송금이 법적으로 보호됨.
<p>조세제도 (법인세)</p>	<p>□ 법인세율 인하 지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1월 나이지리아 정부는 투자 촉진과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세제개혁안을 승인하였으나, 법인소득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은 아직 실시되지 않고 현행 30%가 적용되고 있음. <p>□ 석유소득에 과세혜택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 제정된 석유소득세법(PPT)에 따라 석유자원개발 관련 기업은 과세소득 기준을 기업이익의 85%로 설정함. 사업개시 후 5년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과세소득을 65~75%로 규정함.
<p>금융제도 (현지조달) (자본시장)</p>	<p>□ 은행 구조조정 지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들의 자본잠식, 경영진의 공금 유용 및 불법대출 등 방만한 경영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2005년부터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 주도로 은행 구조조정이 시작되었으며, 2014년 현재까지 강도 높은 금융 부문 개혁이 진행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상업은행(Enterprise Bank, Mainstreet Bank, Keystone Bank) 100% 지분 매각 진행 중에 있으며, 2014년 9월 Mainstreet Bank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같은 해 10월로 연기됨.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p>□ 기준금리 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N은 투자활성화를 위해 2010년까지 기준금리를 6%대로 유지해 왔으나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2011년 10월 9.25%에서 12%로 2.75%p 인상하였고, 2014년 9월 현재 종전의 12%를 유지함.

<p>노동제도 (근로조건) (고용·해고) (노사관리)</p>	<p>□ 높은 실업률, 우수인력 확보 곤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지리아 인구위원회(National Population Commission of Nigeria)의 발표에 의하면 실업률은 2011년 23.9%로 추정되며, 연방 통계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15~24세) 실업률이 2012년 54%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취업자의 농업 부문 편중과 고급인력의 해외유출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기업의 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 증대, 은행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인재 채용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p>□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전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3월 최저임금 수준을 기존의 월 5,500나이라에서 월 18,000나이라(약 115 달러)로 대폭 상향조정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효되었으나, 각 주와 기업마다 자체 기준을 따라 일률적인 최저임금준수가 이루어지지 않음. <p>□ 현지인 우선 채용 장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인 우선 채용을 원칙으로 하나, 현지인 채용이 불가능한 기술·관리·전문 직무에는 외국인 채용을 허용하고, 석유·가스 개발 분야의 주요 직무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이 5%까지만 가능함.
<p>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p>	<p>□ 지역통합 고려한 관세제도 개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지리아는 서아프리카경제협력체(ECOWAS)의 역외공통관세(CET)를 적용하고 있음. * ECOWAS : 서아프리카 국가간 경제통합을 위해 1997년 창설된 경제협력체 ○ 공통관세는 품목을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관세율을 책정하고 있으며, 의약품, 신문, 서적 등 필수품(0%), 원자재 및 자본재(5%), 중간재(10%), 완제품(20%)으로 일원화되어 있음. <p>□ 수입제품 규제 프로그램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생명위험제품군(Life Danger Goods)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표준기구 부합평가프로그램(Standards Organization of Nigeria Conformity Assessment Programme)을 모든 수입제품에 확대하기로 하였음. (단,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관리하는 일부 품목 제외) - 나이지리아 표준기구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선적서류와 함께 수입업체에 보내야 하며, 미제출시 수입 통관이 거부될 수 있음. ○ 나이지리아 정부는 국가 경제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원유·가스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입제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수입 화물에 대한 전량 검사 등 수입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주) 종전 대비 투자환경 및 시장상황 변동내역 확인

□ 나이지리아 시장동향·제도변화 평점

중전평가 대비	매우 악화	악화	유지	개선	매우 개선
투자정책			X		
외환제도			X		
조세제도			X		
금융제도			X		
노동제도			X		
무역제도			X		

주) 중전 대비 변동내역 및 현 수준 평가

□ 나이지리아 시장동향·제도변화(환율변동·소비자물가상승)

	2012	2013	(증감률)
환율변동	157.5	157.3	(0.3%)
물가상승률	12.22%	8.48%	

IV. 요약 및 종합평가

평가분야		평가의견
요약	외국인 투자통계	<p>□ 대 나이지리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실적은 2011년에는 석유와 천연가스 부문을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투자가 확대되어 전년보다 45.9%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 전년 대비 20.2% 감소한 7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13년에는 전년 대비 21.0% 감소한 56억 달러를 기록함.</p> <p>□ 우리나라의 대 나이지리아 직접투자 실적은 2011~12년에 총 투자총액의 97%를 차지하는 광업 부문 투자실적이 크게 줄어들어 따라 전년 대비 각각 45.3%, 23%씩 감소하였으며, 2013년에는 전년과 유사한 270만 달러를 기록함.</p>
	국가위협도	<p>□ 낮은 재정적자 부담과 국제수지 균형, 풍부한 원유 및 가스 매장량, 석유 수출 수입, 비석유 분야의 성장 등을 이유로 OECD(5), S&P(BB-), Moody's(Ba3) 및 Fitch(BB-) 모두 2012년 이후 나이지리아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변동 없이 유지함.</p> <p>□ 단기유동성위험 종전 대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지리아의 단기유동성위험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ECA 거래실적 부문도 종전 대비 개선되었음. 다만, 총외채/총수출,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율 부문이 종전 대비 악화되었음. <p>□ 수용위험, 이윤 송금위험, 대외지급 연체위험 부문의 종합평점은 60.0점으로 수용·송금위험 수준은 종전 대비 악화됨.</p>
	투자여건	<p>□ 기업경영여건 부문은 147/189위로 종전 수준(131/185위) 대비 하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획득 부문에서 순위가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순위가 하락하였으며, 특히 사업허가, 계약실행 부문은 종전보다 각각 순위가 63위, 38위 하락함. <p>□ 글로벌경쟁력지수는 127/144위로 종전 수준(120/148위) 대비 하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시장 효율성, 노동시장 효율성의 순위상승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 안정성, 기업 발전수준 부문 등 전반적인 부분의 순위 하락으로 전체 순위 역시 하락함. <p>□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분야 종전 수준 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제도 부문에서는 자본잠식, 방만경영, 불법대출 등에 대한 은행 구조조정 및 금융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규 정책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음. ○ 조세제도 부문에서는 투자촉진을 위해 정부가 2010년 1월 승인한 세계개혁안에 따른 법인세 인하가 2014년 현재 지체되고 있음.
종합평가		<p>□ 투자환경위험 수준은 주의로 종전 수준 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 나이지리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실적은 전년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전반적으로 나이지리아의 국가신용등급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단기유동성위험은 종전 대비 개선되었고, 수용·송금위험은 종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됨. ○ 대부분의 평가분야에서 종전과 동일 점수를 기록하였으나, 수용·송금위험과 글로벌 경쟁력지수가 종전 대비 악화되며 종합평점이 악화됨. <p>□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및 은행 구조조정 등 현 정부가 확고한 외국인투자 유치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력공급 부족 등 열악한 경제 인프라, 니제르 델타 지역 및 북부 지역의 고질적인 치안불안에 대한 고려가 투자 검토시 요구됨.</p>

주) 위험수준은 요주의, 주의, 보통, 양호, 매우 양호로 분류함.